

지역 매 아리

김제시농업기술센터

2019년 벼농사 종합평가회 개최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에서는 19일 올해 기상에 따른 벼 작황 분석과 병해충 발생 동향 등 고품질 쌀생산 종합 평가와 함께 벼농사 시범사업(고품질 쌀 품종선발, 무인드론 이용 경영비 절감, 벼 소식재배 등) 추진상황 등 영농 현안에 대해 농업인들과 함께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를 마련해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벼농사 시범사업 농가 및 쌀연구회 회원, 독농가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벼농사 종합 평가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문제가 됐던 키다리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등의 병해충 발생 동향과 도복의 원인 등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2020년도 벼 품종 선택과 건전한 종자 확보요령을 교육했다.

특히 강의를 실시된 현장평가에서는 최근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은 벼 소식재배 포장 견학을 통하여 주수별, 품종별 작황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소식재배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공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김제시 공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9일 공덕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김경관 공공위원장(공덕면장), 박영환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협의체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상반기 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및 성과로, 추석 명절 전 관내 저소득계층 독거노인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실시된 특화사업(사랑의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하반기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사업에 대한 토의를 진행해 세부계획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대상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며 지역 내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사업은 복지기동대의 협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집수리 등의 연계를 통한 도움을 주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도 도배, LED등 교체 사업, 방충망 교체 사업 등의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했다.

박영환 민간위원장은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고 살피서,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덕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ASF 유입차단 총력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24시간 비상체계

완주IC·소양IC 거점소독시설 운영... 소독필증 발급

완주군이 경기도 파주 소재 돼지농장에서 이어 연천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유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완주군은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완주IC와 소양IC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24시간 축산관련 차량을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하고 있다.

또한, 공동방제단 3개반을 운영해 전체 양돈농가주변 주요도로 및 방역취약지(소규모농가)에 대한 일제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돼지사육 전 농가에 생식회, 소독약품을 긴급 공급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관련시설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양돈농가, 축산관계시설(사료공장, 분뇨처리시설 등)을 점검 및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완주군 담당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양돈농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양

돈관련 시설차량 등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소독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하고,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돼지열병이 확산될 경우 돼

지고기 가격 상승과 소비시장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 차단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돼지열병은 사람 감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익혀먹는 것만 지키면 된다"며 "소비자들이 돼지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돼지열병 확산이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완주IC와 소양IC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24시간 축산관련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석정 이정직의 생애와 작품세계 특별전시

허전 김제시 부시장, 국립전주박물관서 문화발전방향 모색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조선 후기 선비인 석정 이정직의 생애와 작품세계에 대한 특별전시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허전 김제시 부시장이 국립전주박물관을 방문, 김제 출신의 선비 이정직의 예술활동과

글씨와 회화, 그리고 후학들의 작품을 둘러본 후 국립전주박물관장(천진기)과의 면담의 시간을 가졌으며 김제 문화의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천진기 관장은 김제라는 지역에 대해 사서오경은 물론 천문, 지리, 의학, 수학, 서화에 통달한 석정 이정직을 중심으로 수많은 선비들이 배출된 고장이며 전주박물관에서 전북도의 선비문화를 조명하는 데에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허전 부시장은 "석정 이정직 선생은, 김제서단을 이끌며, 송기면, 조주승, 송성응등의 걸출한 서예가들이 호남서예계를 뛰어넘어 전국서예계를 뒤흔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 관심을 보여준 국립전주박물관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16년도에는 김제시와 국립전주박물관이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으며 이날 만남을 통해 역사 및 문화사업에 대해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임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난 18일 허전 김제시 부시장이 전주박물관장 만나 김제 문화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구독·광고문의 288-9700



김제시는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김제시민운동장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울림장터'를 연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울림장터' 개최

김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개국 다문화음식 판매 등 무료 결핵검진 실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다문화 행복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김제시민운동장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울림장터'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향 어울림장터는 더욱 다양해진 5개국 다문화음식 판매,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알뜰장터, 아시아 전래놀이, 아나바다장터, 케이팝만들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며 또한,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의 협력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 4월의 봄내을 장터에서 취취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작은행복봉사단, 김

제염마들, 월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김제여고 미술동아리 "보라나", (사)김제도농협력사업단 등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와 티셔츠 만들기, 부들피리 만들기, 캐리커처 등 다양한 체험을 선보일 예정으로 다문화가족과 지역민들의 가을나들이 발길을 기다리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은 가을향 어울림장터가 다문화가족과 지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공동체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역내 많은 다문화가족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선배들이 들려주는 귀농·귀촌 상담 인기

완주군이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전라북도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귀농귀촌 상담을 진행, 인기를 끌고 있다.

19일 완주군은 이날부터 20일까지 '2019년 제2회 수도권 귀농·귀촌 상담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대한민국 로컬푸드'의 시작,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는 곳, 희망 완주 라는 타이틀을 걸고 완주군의 귀농·귀촌 현황과 로컬푸드로 대표되는 농업·농촌 정책, 교육,교통 등 완주군의 강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특히, 완주군에 귀농귀촌한 선배들이 참여해 우여곡절 경험담과 시골살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상담이 끝난 후, 한 참가자는 "수도

권 근방 가까운 곳에서 귀농·귀촌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 살아갈 농부로서의 삶을 계획하는 데 참고가 됐다"며 "완주군은 고려하지 않았었는데 상담을 통해 완주군에 큰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정균 농업축산과장은 "베 이비분 은퇴세대들을 겨냥한 귀농귀촌 홍보에 적극적으로 발로 뛰겠다"며 "기존 완주군에 정착한 귀농귀촌인들도 지역민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융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전북 상담홍보전에도 참가해 완주군의 다양한 귀농귀촌의 정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